

잘파세대의 최애 最愛

글 | 이명진 soziro01@kaa.or.kr



사진 출처 : 헬튼 유튜브 캡처

#1. 울감과 붓 대신 디지털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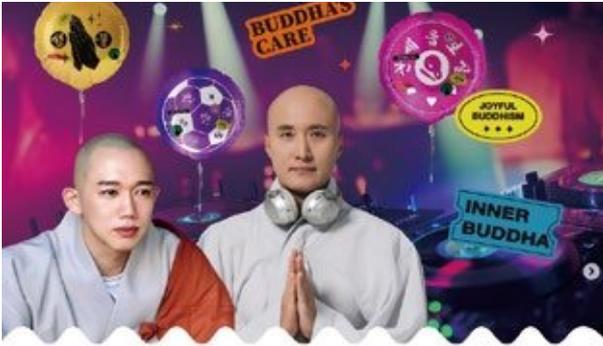
태블릿으로 수업과 과제를 필기하는 학생들. 그림 도 스케치북 대신 태블릿에 그린다. 초등학생도 이모티콘, 인스타 툴을 그리고 미술학원도 변화에 맞춰 디지털 드로잉을 가르친다. 미술 대회도 디지털 드로잉 부문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출처 : 다이버스튜디오스 웹사이트

#2. 피라미드게임 이어 속마음 투표앱 인기

선거로 왕따를 뽑는다는 피라미드게임은 10대의 오징어게임으로 불리며 Z세대에 큰 인기를 끌었다. 피라미드게임의 양자버전인 OMG 앱은 친구, 학우들 사이에서 인기투표를 하는 앱이다. 990원 유료 판매에도 가입이 늘고 있다. "돈 내도 어른은 가입 안 되요."



요즘 불교 근황

#나베고

#재밌는거 하는

#불박 근황

사진 출처 :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식 인스타그램

#3. 극락도 락이다. 힙합의 선두 주자 ‘불교’

상반기에 가장 핫한 행사는 2024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였다. 수많은 청년 참석자들이 연일 SNS에 사진을 쏟아냈다.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의 ‘부처헨샵’ 디제잉부터 팔로워 3만명의 꽃스님(범정스님), 시부처 고민 상담 등 불교는 ‘가장 힙한 종교’로 리포지셔닝하고 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호국나이트?”

뉴진스 감성으로 바라본 일상



사진 출처 : selfie.zip 인스타그램

#4. 디토 감성에 레트로 카메라·구형 아이폰 든 잘파

‘뉴진스가 만든 디토 감성’ 2000년대 초반 분위기의 저화질 사진이 유행이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1회용 카메라 등이 시대를 역행해 잘파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저화질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폰 5·6도 중고장터에서 사고 팔린다고..



사진 출처 : 급식걸즈 유튜브 캡처

#5. 급식왕 급식걸즈 급식쌤들.. 급식급식급식

TV에서 설자리를 잃은 개그맨들이 모여 유튜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초등학교들의 최애 콘텐츠 중 하나는 바로 급식 시리즈. 뮤지컬·도서로도 출간되며 OSMU도 활발하다.